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월 7일(주일) 제1474호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재훈 위임목사와 레바논 아이들.

1월 6~7일, 13~14일 '2024 선교헌금 작성' 선교헌금 작성서, 온라인 작성서, 전화 참여

온누리교회의 새해는 선교와 함께 시작한다. '2024 선교헌금 작성'을 1월 6~7일과 13~14일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캠퍼스 모든 예배에서 실시한다. 2024 선교헌금 작성에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 전화(02-3215-3616)로 참여하면 된다.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할 때는 'CMS'나 '봉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 키워드는 '협력 선교'다. 전 세계 교회 및 선교 기관과 협력하며 선교를 이어가고, 한국로잔위원회의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더불어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 교회 및 해외 현지 교회와 함께 이주민, 난민, 다문화가정 사역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선교사 파송, 선교지

및 선교사 지원, 긴급구호, 난민 돌봄 등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췄던 선교를 다시 시작했다. 신규 선교사 57명을 파송했고, 아웃리치에 성도 8천7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외에도 비터민C 프로그램, KGMLF 대면 모임 등을 했다. 이주민과 난민 사역에도 집중했다. 서산M센터가 개관했고, 이주민 선교 30주년 감사포럼, 레바논 난민 전도집회 등을 개최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의 주인공”이라면서 “늘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관련 기사 6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신임대표 전진국 집사

1월 9일 오후 5시 아·취임예배

전진국 집사(전 KBS 부사장)가 CGN 제5대 대표로 취임하고, 이용경 장로가 이임한다. 1월 9일(화)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아·취임예배를 드린다.

전진국 집사는 1985년 KBS 공채 11기 PD로 입사했다. 편성본부장, KBS 아트비전 사장 등을 거쳐 KBS 부사장을 역임했다. '가요톱10', '사랑의 리퀘스트', '열린 음악회' 등을 기획했고, 2002년 공중파 방송국 3사를 대표해 '2002 월드컵 성공 국민대축제'를 총지휘했다.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 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서빙고온누리교회 행정지원실에 가져다주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6959-0001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3월 31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 소속을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으로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소속, 이름, 연락처'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5주차!

1월 20일까지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분당

‘2023-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종반에 다다랐다. 2주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주제로 1월 20일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11개 캠퍼스 본당에서 이어진다. 영상 예배(유튜브, CGN Live)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주제는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이다.

박종길 목사(서빙고온누리교회 담당), 박철웅 목사(양지온누리교회 담당),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담당),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당),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정한호 목사(W청년부)가 설교한다. 차세대들도 지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 가족과 함께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한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차세대들에게 선물을 준다.

/ 홍하영 기자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영어 번역본에서는 ‘시간을 다시 사라’,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는 분명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시간 관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을 분, 초로 쪼개서 관리하며 사는 게 과연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일까요? 분, 초까지 계산하며 살아갈 때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 좌우를 살펴볼 겨를 없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초원에서 풀을 뜯으며 살아가는 ‘스프링북(springbok)’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스프링북은 때를 지어 이동하는데 수백, 수천 마리가 때를 이룬다고 합니다. 시속 94km나 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치타, 호랑이, 사자 같은 들짐승들도 쉽게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프링북이 때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식욕이 강한 스프링북이 무리를 지어 풀을 먹는데, 빨리 풀을 먹으려고 뛰다가 경쟁이 붙은 것입니다. 뒤처질까 계속 빨리 뛰어가다가 가속도가 붙어서 나중에는 풀을 뜯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풀을 뜯기 위해 달려가다가 경쟁심에 가속이 되어서 집단 몰사를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속도, 경쟁, 앞서가려는 마음에 자멸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의 관점에 따른 두 가지 문화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윌리엄 맥커넬이 시간의 관점에 따라 문화를 크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문화(Future-oriented culture)’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시간 관리’는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사건지향적 문화(Event-oriented culture)’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사건에 얼마나 충실한지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입니다. 영어로 ‘future’는 미래를 가리키는 좋은 단어 같고, ‘event’는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데, 이벤트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목적 중심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사회는 우리처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숫자를 보면서 한 해를 따지지 않고, 그해에 이뤄져야 할 중요한 사건에 따라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제가 이 시각을 가진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유학을 시작할 때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수업도 따라가기 힘들어서 페이퍼를 제대로 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과목의 교수님이 유명한 선교학자 폴 허버트입니다. 그 분이 정말 인자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페이퍼를 내는 게 중요하게 아니라 당신이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당신이 학교에 몸담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학점을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충실히 무엇을 배웠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페이퍼를 내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뉴저지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합니까?”라고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도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하용조 목사님은 제게 전용기가 있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내가 살아있고 당신이 학점에 있는 한 학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과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1년에서 1년 반에 미치는 과정을 4년에 걸쳐서 시카고와 뉴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폐암에 걸려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통화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의 그분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는 네이티브에게는 정확한 시간을 요구하셨지만, 저처럼 유학생으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에 맞춰서 몰아세우듯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가? 그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시간에 맞춰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다.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문화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은혜로운 관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사탄에 의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헬라어에서 ‘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놀로지(chronology, 연대기)’가 나온 것처럼,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할 때 ‘세월’은 헬라어 ‘카이로스’의 복수형인 ‘카이론’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세월’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카이로스’라는 번역에 대응할 한글 단어가 없고, 영어에도 없어서 미래지향적 문화를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많은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카이로스’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에 초점을 두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습니다. 앞에 ‘세월’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뒤에 ‘때’는 영어로 ‘더 데이즈(the days)’,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월’입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세월이 악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사탄에 의해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시간을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할까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시간을 사탄으로부터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탄이 시간을 어떻게 악의 도구로 사용할까요?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제 얼마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앞으로 1년밖에, 2년밖에 아니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왜 두려운 걸까요?

어떤 분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카이로스의 삶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도 허용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밝게 빛나는 모습이었
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오늘 하루가 마지
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일주일이나 남았다
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남았
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주고 절망하
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한이 주어져도 감
사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삶을 산 사람은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이 33세 삶을 사셨습니다. 33살이면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
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한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가지신 계획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애를 만일
오랜 세월, 100세로 하셨다면 100세 이하를 산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33
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 내가 많
은 것을 성취했다”가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아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
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
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을 향하고 있지 않다

둘째, 시간이 영원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의
미입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정말 잘
못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세월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영원을 향하
지 않을 때 사탄은 시간을 악의 도구로 사용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어진 시간을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
다. 영원을 바라볼 때 시간을 다시 살 수 있습
니다. 시간과 영원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영
원은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닙니다. <고백록>을
보면 시간과 영원을 잘 구분하고, 아주 긴 페
이지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중에서 핵심적
인 한 문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로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현재이다.”

영원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고, 언제나 현재
입니다. 시간과 영원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입
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
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시간 속에 인간
을 머물게 하심으로 영원을 향하게 하셨습니
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
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개역개정)”(전
3:11a).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정하
신 까닭은 영원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
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의 그림자입니다. 우
리는 영원한 삶을 사후의 삶, ‘애프터 라이프
'라고 부르곤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

다. 도리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포 라이프
'입니다. 진정한 삶은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세의 삶을 살
든 시간 속에서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의식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옳은 일, 주의 뜻대로!

“그러므로 지각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17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
각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고, 충실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충실히 순종했
는지를 평가합니다.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일
을 잘하는 것,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옳은 일
을 하는 것,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의 의미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모두 하나님의 선
물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
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삶이 될 때 예
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

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
하게 되십시오”(18절).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알코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대
표하는 대명사가 술입니다. 술에 취하면 가장
먼저 분별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함으로 시
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흘러
가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게 술취
함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면 매
순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카이로스의 삶으로
영원을 바라보고,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
한 압박감도 허용하지 않으며, 주의 뜻을 이
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세는 게 아니라 지난 한 해 우리를 통해 하나
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졌는지,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
이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만 카운트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자유와 평등

인권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존엄성과 가치 인정 이유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다른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존엄성과 가치성을 부여했다(창세기 1장). 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을 강화한다. 반면, 창조주와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성의 근원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근원을 국가에서 찾게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것이 인권에 관한 논쟁의 근원이다.

인권을 논하는 사람들은 인권의 본질이 자유와 평등에 있다고 말한다. 자유는 자기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 제한이 없는 방종과는 구별된다. 의무의 동반 여부와 실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로 구분한다. ‘형식적 자유’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유다. 방종과 구분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담배를 피울 자유도 있지만, 맑은 공기를 마실 자유도 있다. 형식적 자유는 항상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담배 피울 자유가 있지만,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호흡할 자유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실질적 자유’인데, 해외여행의 자유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는 없지만, 시간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자유든 거기에는 제한이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자유와 충돌할 때는 더욱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에는 원칙이 필요하다. 자유를 제한할 때는 첫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제한하는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셋째, 자유의 제한 정도를 최소화해야 하고, 넷째, 제한의 목적과 자유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법의 균형성이 필요하다. 이상 네 가지 원칙 중에서 하나라도 위배하면 과도한 자유의 제한으로 비판받게 된다.

“성경에서의 자유는 한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강조한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그분의 법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평등에도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 인간 사이에는 절대적 평등이란 불가능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평등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 그의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상대적 평등이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다. 기독교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제시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근거한 평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자가 없는 무신론자나 범신론자는 자기 나름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근거한 평등의 기준을 주장한다.

평등의 두 번째 구분은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다. 법적 평등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특히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법을 어긴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창조/문화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법적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고,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할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상대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미 주어진 사회경제적 출발점부터 같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는 금수저를 다른 이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어떤 이는 높은 지능을 다른 이는 낮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떤 이는 좋은 육체적 조건을, 다른 이는 열악한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들에게 어떻게 출발점을 맞춰줄 것인가? 결국 출발점을 똑같이 맞춰줄 방법이 없으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실질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정의’가 주장하는 평등의 핵심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인간은 자유 속에서 평등을 갈구하다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자유를 포기하고 예측 상태에서라도 평등을 찾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출발점을 같이 맞추려 노력했던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던 국가들이 모두 실패했다. 이는 인위적으로 모든 면에서 평등을 맞추려는 노력은 ‘하향평준화’로 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마르크스의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순진한 이상주의이며, 인간의 창의력과 근면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나쁜 점만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보수정당은 자유를, 진보정당은 평등을 더 소중한 가치라고 서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고, 자유와 평등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때야 인권이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다. 반면 성경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평등에 대해서 거의 설명이 없다. 또 성경에서의 자유는 개개인의 권리로서의 자유보다 한 인간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인권은 그분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것(렘 22:3)이며, 그 법 아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요 8:32).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바라봄과 하나님 나라

유현목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담당)

10년 전 아내와 함께 바닷가에서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곤 했다. 삼킬 듯 달려들던 파도는 매번 물거품으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졌다. 어느 날 침묵 가운데 파도의 속살거림이 들렸고, 그것은 우주의 찬양 소리로 변했다.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시간은 영원 속으로, 존재는 그분의 숨결로 가득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일상이 되었고, 물거품을 삼키던 인적없는 백사장은 어느새 영혼의 기도처가 되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 눈이 밝으면 현상 너머의 본질을 밝히 볼 수 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살지만, 정작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잘 안다는 착각과 익숙함에 취해 소중한 이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오해를 쌓아간다. 각종 사건 사고의 뉴스를 접하며 분노하고,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SNS에서 누군가의 일상을 열심히 훑쳐보지만, 채색된 안경을 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기에 왜곡된 감정에 휩싸인다.

21세기 인류는 식량과 물 부족, 양극화, 전염병, 핵전쟁,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 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 엄청난 도전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이기심과 경쟁심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소외와 비인간화는 깊어졌고, 심각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인본주의, 인간 본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냄비 속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다.

“오늘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현상 너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창조주의 눈으로 뒤덮인 자연현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동치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속사는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천국은 이미 왔고, 지금 오고 있으며,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창조와 타락, 구속과 재림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면 해석되지 않던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해산의 고통 소리로 들린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그분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과 그 영역을 의미한다. 여호와와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온 세상은 모두 그분의 소유로써 그 주권 아래 있다. 인류가 타락해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사탄에 매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복음을 성취하셨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될 것이다.

본래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지극히 큰 사망’이 주어졌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존재도 그분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이 땅에서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무언가를 그득하게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 ‘바라봄’은 익숙함을 낯설음으로, 뻔한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로 만든다.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여호와와 숨결을 느낀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고 계신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시기까지 일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초청하신다.

세계관이란 ‘바라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만유를 다스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대한 손을 보고 있다. 섭리 편에서 인생의 불행과 역사의 부조리를 해석할 때 칠후 같은 어둠 속에 아파했던 순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2024년이 밝았다.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천국은 오늘 더 가까이 와 있다. 오늘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현상 너머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불안

‘안전기지’와 ‘성공 경험’



최은영 교수
(햇볼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유 없이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로 치료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중에서 10대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 조사 결과처럼 요즘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참 많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불안을 느낀다. 안전했던 엄마의 뱃속에서 세상으로 처음 나오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시간을 떠올리며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불안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며 산다.

사람들이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불안을 회피하는 방법과 통제하는 방법이다. 간단한 예로 들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전날 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잠이 든다면,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이라는 회피 방법을 사용한 회피형일 수 있다. 통제형의 사람이라면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기 위해 밤새 시험공부를 할 것이다. 단편적인 예시지만,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그 행동의 결과가 달라진다.

아이들은 불안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청소년들이 불안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증상별 원인과 크리스천 부모로서 불안한 자녀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불안장애 유형이 ‘공황장애’다. 공황장애는 불

안장애의 일종으로, 공황발작을 예측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질환이다. 공황은 억제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불안을 마주하지 않고 피하던 사람에게 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이 증폭돼 올라올 수 있다. 자신이 회피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호흡곤란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몸이 같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기분까지 들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다음 많이 나타나는 불안장애가 ‘강박장애’이다. 강박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강박이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완벽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긴장하고

“자녀들이 안정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 경험’과 ‘안전기지’가 필요하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수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그렇게 키운 부모가 존재한다. 자녀의 실수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실수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발표장애’다. ‘사회공포증’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등 낯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장애, 사회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의 평가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 등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

‘공포증’도 많다. 바퀴벌레, 높은 곳, 피(血)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공포증 대부분 자신의 불안이 특정 대상에 치환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한 사람이 피에 대한 공포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공포증은 자신이 경험한 불안과 공포가 특정 대상에 치환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공포증 치료를 위해서는 불안이 어떤 대상에 치환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녀의 불안 문제를 지도하기 위해서 부모가 제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안전기지’와 ‘성공 경험’이다.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또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안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성공 경험을 시켜주려면, 자녀들의 작은 실수를 유머로 받아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가 잘한 일이 있을 때 크게 칭찬해 줄 것을 권한다. 예를 들면, 맨날 늦게 일어나던 아이가 20분 일찍 일어나면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이다.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 때마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다.

안전기지만 너무 무섭고, 슬플 때 찾아가서 안기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다. 아이들에게는 무슨 일이든 충분히 이해받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랑받고, 늘 한결같이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안전기지 역할을 부모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너는 정말 소중하다. 내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에 큰 능력이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내게로 오렴. 내가 네 옆에 있으면 너는 언제나 안전하단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 경험이 쌓인다면 자녀들이 안정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8편 불안’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 차세대 독후감 대회’ 수상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를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도 만드셨어요. 동물들

은 신이 나서 동산을 뛰어다니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은 혼자 외롭게 사는 아담을 보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하와였어요. 그 둘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 있는 길, 진리, 생명, 사랑, 영광, 권능, 기도는 창조를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직 창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전해야 창조 이야기를 알 수 있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김예담 어린이
(서빙고 유년부, 사랑상)



61.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1월 1~2일
본문 '막 1:7~11, 막 1:16~20'



아래 설명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맞춰 보세요.

1) “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요. 사람들이 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물려오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예요. 나보다 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예요.”

① 예루살렘 ② 요한 ③ 바울 ④ 사개요

2) “나는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동생 안드레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니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① 다윗 ② 야고보 ③ 시몬 ④ 노아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별인터뷰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

“우리 모두 선교의 주인공”

기도, 후원, 섬김 ... 함께 선교합시다!

온누리교회의 새해는 선교헌금으로 시작한다. 1월 6~7일, 13~14일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2024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를 만나 선교헌금 작성의 의미와 필요성, 2024년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 제4차 서울 로잔대회 준비 과정 등을 물었다. 김홍주 목사는 새해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 후원, 섬김 등을 실천하며 선교의 주인공이 되자”고 권면했다. 다음은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선교하는 온누리교회’라는 말 앞에 ‘함께’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지켜본 온누리교회의 선교 역사 중심에 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역에 기도와 헌신,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성은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선교의 비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축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봉헌해 주신 재정은 여러 선교사역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 887명을 후원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돕고, 재난 당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가 긴급구호 활동을 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 및 현지 목회자를 훈련하고,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귀한 사역에도 쓰입니다.

선교헌금 작정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선교의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선교에 헌신하는 영적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온누리교회 선교가 맺은 열매가 풍성하다고 들었습니다.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도 궁금합니다.

“202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보이던 선교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파송이 코로나19 이전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장단기 선교사 57명을 파송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국내외 아웃리치에는 온누리교회 성도 8천7백여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9천 명 이상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90% 회복했습니다. 비타민C, 한국글로벌선교리더십모임(KGMLF) 등과 같은 국제적인 선교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온누리교회 선교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선교에 관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주인공입니다.
그 자리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재개했습니다.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714 기도대성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 성도 1만 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적인 집회도 개최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레바논 난민전도집회, 새로운 M센터 개척 등 이주민과 난민들을 돕는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새해에도 그 뜨거운 선교 열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활발한 선교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은 한 마디로 ‘협력 선교’입니다. 선교지에 일방적으로 주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과 협력하는 선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 다문화 선교사역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이주민과 난민 사역은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그 필요성을 잘 알기에 지난해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직접 레바논 난민촌에 가서 난민들을 만나고, 전도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헤매고, 어려움을 당하는 난민들을 찾아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난민 사역이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사역과 다문화 사역

의 필요성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다문화 사역은 어느 한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이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농어촌교회, 이주민 선교에 관심이 있고, 교육할 수 있는 대형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중요한 사역에 더욱 집중하고, 내실을 다지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 국내 지방 교회들과 협력하는 선교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제4차 서울 로잔대회’가 개최됩니다. 제4차 서울 로잔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온누리교회는 제4차 서울 로잔대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한국로잔 의장으로 섬기고 있고, 제4차 서울 로잔대회 국제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부터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로잔대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더불어 유기성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최성은 목사님, 주승주 목사님, 문대원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로잔대회를 알리고, 한국 교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위해 한국 교회가 함

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함께 벌이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운동은 제4차 서울 로잔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전국에서 연합집회로 50여 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한국로잔 준비위원회에서는 매일 기도문을 작성해서 한국 교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은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은 올 한 해 한국 교회가 ‘제4차 서울 로잔대회’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공동설교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영성과 은혜를 공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2024년 ‘온누리교회 선교’와 ‘제4차 서울 로잔대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온누리교회 선교는 선교사나 목회자 중심의 선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써가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그 귀한 모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동참할 수 있는 선교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도 선교의 한 부분입니다.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헌금 작성에 동참해서 재정적 헌신을 하는 것도 귀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특히 ‘제4차 서울 로잔대회’에 많은 관심과 헌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제4차 서울 로잔대회’에 자원봉사자 1천여 명이 필요합니다. 기도, 후원, 안내, 통역,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에 관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의 주인공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더 일찍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안내팀, 주차봉사팀, 특순, 챔버팀, 영상팀 등

더 일찍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만났다.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안내팀과 주차봉사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챔버팀, 특순을 섬기기 위해 달려온 성도들이다. 영상팀, 방송팀, 보일러실, 식당팀도 더 일찍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교회 어디에도 섬기는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섬김과 헌신 때문이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안내팀과 주차봉사팀의 트레이드마크는 환한 미소다.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에 온 성도들을 맞이한다. 경국현 집사(성동광진공동체)는 안내팀과 예배 중보기도를 섬기고 있다. 그는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저의 작은 섬김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는 얼굴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안내를 섬기는 날에는 평소보다 교회에 일찍 와야 해서 피곤하고 힘들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교회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이준 장로(성동광진공동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그 마음으로 섬기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으셨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이들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무엇보다 새벽기도회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동규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는 주차봉사팀에서 사명을 따라 섬기고 있다. 주차봉사팀을 섬기면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주차봉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에기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섬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게 주차봉사팀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광제 장로(양천공동체)는 주차봉사를 하면서 새 힘을 얻는다. 주차봉사를 섬기면서 마



더 일찍 새벽을 깨우는 안내팀, 주차봉사팀, 챔버팀, 수원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시계방향으로).

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힘든 마음이 감사로 변한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을 한분 한분 맞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섬기는 게 힘들 때도 있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기면서 오히려 새 힘을 얻습니다. 성도들님과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힘든 마음이 어느새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설렘 가득한 발걸음

수원온누리교회 연합찬양사역팀이 지난 12월 21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특순을 선보였다. 수원에서 서울 서빙고동까지 오려고 아주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럼에도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 설렘을 김정아 집사(수원온누리교회)가 고백했다.

“한동안 아파서 누워지내다가 회복하고 특순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 가사가 저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가 누워있던 자리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최훈희 성가사(수원온누리교회)는 찬양을 준비할 때마다 설렘을 감출 수가 없다. 30여 년

이나 섬겨온 일이라 익숙할법도 한데,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청년 시절을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보냈었기에 더욱 설렘했습니다. 평소보다 큰 설렘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드린 눈물의 기도와 은혜가 가득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나를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채슬아 권사(찬양공동체)는 1년 365일 새벽기도회에 나온다. 매주 수요일에는 챔버팀에서 섬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은혜로 하루를 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챔버팀 활동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기회이자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라는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면 큰 힘과 용기가 샘솟습니다. 특히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김정훈 장로(OCC공동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0년 전 찬양팀에서 섬기다가 못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서 악기를 배워 챔버팀에 입단했습니다. 저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주혁 형제(SNS공동체)는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변화된 일상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지금이 아니면 못 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덕분에 영적, 육적으로 더욱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회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믿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동원 목사(예배본부, 찬양공동체)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섬기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새벽을 깨워 섬기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40일 작은예수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 12월 30일 토요일

닫힌 문을 여는 사람들

〈사도행전〉 16:23~31

이서진 목사

인생에 폭풍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물려올 때 비바람과 폭풍,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 대처하는 영적인 자세와 믿음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폭풍 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두 사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며 선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여종을 부리던 주인이 격노했습니다. 귀

신 들려 용하게 점을 보던 여종이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내고, 그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의 관리는 재판을 부정하게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인생의 닫힌 문 같은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발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닫힌 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처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굳게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굳게 닫힌 그

문 안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이 감옥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 느껴지는 감정과 감각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닫힌 문을 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감옥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26절). 진정한 예배는 모든 감옥 문을 열고, 쇠사슬을 풀게 합니다. 감옥과 같은 현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지라도, 닫힌 문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

니다.

셋째, 그들은 열린 문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앞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들을 놓친 죄로 처형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가 열린 문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감옥 안에 머물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유와 축복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안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닫힌 문 앞에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힘들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모욕당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안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 1월 2일 화요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9~10

노희태 목사

자녀가 부모에게 속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두 가

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임시를 앞두고 있을 때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대학을 한 곳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기에 그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단기선교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이라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제안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1년 4개월 동안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귀국하기 일주일 전에

보낸 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실까?’에 집중했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으려 하면서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가사가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국하고 앞으로의 삶이 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의무이자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 1월 3일 수요일

계산을 넘어 약속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3:1~12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어떻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 개의 방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담대함입니다. 셋째, 증인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라는 낱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의 언어로 과연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무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났다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같은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둘째, ‘담대함’이라는 낱말입니다. 진정한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강하게 될 수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대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집시다. 그런데 두려움은 무

엇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주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순도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순도 100%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만큼 사랑의 힘이 생겨납니다. 담대함을 얻으려면 내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셋째, ‘증인들’이라는 낱말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주고,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앞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이 있을 때 그 어떤 환란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두 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바로왕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도피의 광야’입니다. 아무런 비전도 없이 세 월을 보내는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40년 도피가 지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광야입니다. 새로운 광야가 그에게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곳은 사명의 땅,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의 이 자리가 첫 번째 광야인 도피처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약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는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계산을 넘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월 4일 목요일

풍랑을 넘어서는 삶

〈마태복음〉 14:22~34

김승수 목사

삶이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34절에서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인생의 위기가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보내

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온 것 같은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둘째,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큰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풍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바다가 새로운 도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너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걸 어간 이 길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니까 곧바로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 르시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두려움의 자리가 가장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낙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풍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 1월 5일 금요일

핍박 그리고 복

〈사도행전〉 8:1~20

이준호 목사

이번 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주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핍박이 확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늘 은혜가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인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역설적 무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우리 삶을 찾아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

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둘째,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핍박당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은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절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핍박을 통해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했을 때 사마리아로 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고난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

종할 때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의 구원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세례를 주고 기도할 때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깨어지고, 성령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었을 때 모든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계속 맑으면 사막이 된다’는 아랍 속담이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 인생을 축축히 적시는 단비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 그 비가 옷을 적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적당히 수분 있는 땅이 되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라는 단비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신년 특집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1. 돈

사회 경제체제와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

〈온누리신문〉에서 2024년 온누리교회 표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A Bold Witness for Christ)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코너를 마련했다. 성도들이 마주하는 일상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다.

/ 편집자 주

오늘날 사회의 경제체제를 도외시하고는 돈의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제체제와 성경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혹자는 경제체제와 성경은 관련이 없다고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죄와 복음의 입장에서 설명한 책이지, 경제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니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혹 성경이 어떤 특정 체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독교 진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제체제라도 그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체제가 성경적으로 우월하거나 기독교 진리에 부합하는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어떤 사회적 체제 속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했느냐 혹은 그 체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기독교 가치관이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어떠한 경제체제라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아무리 이론상 완벽해 보이는 체제라도 그 체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모순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경제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체제라도 그 체제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체제에 있든지 본질적으로 흠이 있는 체제임을 인정하고, 늘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체제가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기독교 진리와 구별된다면 그리스도인의 돈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신앙 문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인간이 만든 체제가 본질상 흠결이 있는 제도임을 인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돈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

해서 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게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극복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체제의 운용이 필연적으로 부의 창출 및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복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해서 설명할 수 없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 구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의 복음은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의란 세속적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한다.

팀 켈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정의’와 ‘교정정의’로 설명하고 있다. 기초정의란 ‘사람이 이웃과 올바른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에스겔〉 18장 5절과 7-8절은 기초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번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겔 18:5, 7-8a).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대부분 기초정

의를 행하는 것이다. 기초정의가 완전하게 구현되면 가해자를 벌주고,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교정정의가 불필요해진다. 성경은 빚진 자, 주린 자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희년제도 등).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사람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돈의 문제를 개인으로 한정한다면 본질적으로 신앙 문제지만,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불완전한 체제가 그리스도인의 돈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의 힘에 굴복해서 안 될뿐더러 교회



오종규 팀장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

목사와 함께 떠나는 ‘섬교회 나들이’

우도 중앙에 심긴 생명나무 ‘우도교회’



이세연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제주도 여행을 좀 해 봤다는 이들은 본섬이 주는 색다른 광경과 즐거움을 쫓아 부속 섬들을 찾아다니는 열심(熱心)을 보인다. 그 열심이 닿는 곳이 최남단 마라도, 가파도, 그리고 우도 아닐까? 그중에서 우도는 제주도의 부속 섬 중에 가장 큰 섬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소섬’ 또는 ‘췌섬’으로도 불렸다. 완만한 경사와 기름진 땅, 풍부한 해산물들을 품고 있는 우도의 이로움은 사람들이 이곳을 정착지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제주도 본섬과 또 다른 우도만의 특색있는 자연경관(우도8경)과 한 시간마다 운행하는 배편의 자유로움이 여느 부속 섬보다 큰 매력 되어 수많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우도는 300여 년 전 숙종 때, 국마(國馬)를 기르기 위한 국유목장으로 지정되었다. 말의 방목으로 인해 드문드문 사람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이곳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 것은 1844년 김석린 진사 일행의 이주를 그 출발

로 보고 있다. 그 이후 본격적인 개간과 이주가 이루어져 어엿한 촌락을 이루었다. ‘소섬’이라는 이름이 불편해서 물에 뜬 두둑(땡지)이라는 뜻의 ‘연평’(演坪)으로 불렸다가 다시 ‘우도’라는 이름을 찾게 된 사연도 있다. 제주도의 첫 번째 등대가 세워지고, 빛을 발한 곳도 이곳 우도다. 그래서일까? ‘우도 등대’를 찾아가는 길에 ‘우도등대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의 아름다운 등대 모형을 섬세하고 자세하게 펼쳐놓아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과 배움의 시간을 선물한다. 무엇보다 우도는 자동차 통행에 제한을 두었다. 현재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조용한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의 방문이 예상된다.

우도 땅을 밟았다면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있다. 우도 한가운데 위치한 ‘우도교회’(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95).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그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다.

우도교회 역사는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의 시기에 돌입하고, 점차 선교의 열정이 움트기 시작한 1970년대 이르러서 시작되었다. 1974년 5월,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이하 여전도회)에서 파송한 김유미 전도사가 우도의 가정집에 모여 함께 드린

예배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1년만인 1975년 5월, 여전도회의 도움으로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고, 첫 예배당의 모습을 갖췄다. 우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한가운데 교회가 우뚝 섰다.

1970년대 우도에는 3천 5백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2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당시 초중등학교는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었다. 당시 파송 받은 전도사에게 어린 영혼들을 위한 교육 시설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이 소망과 여전도회와 독일교회(KNH, Kindernothilfe[German for ‘Supporting children in need’])의 협력으로 우도 교회가 탁아시설(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됐다. 교회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고, 헌금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 사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사역지에 여성사역자를 파송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가 자라도록 돌보며 키운 증거가 바로 ‘우도교회’다.

우도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순간 경험하는 독특한 향기가 있다. 그 향기가 이곳이 바깥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공간임을 알아차리게 한다. 가지런하게 정돈된 장의자와 예배당 천장과 벽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나무로 장식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나무향이 난다.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오늘 여기에’라

는 표어와 그 아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문구가 우도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이자, 사랑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해준다. 우도 여행 중이라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우도교회를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우도교회는 현재 넓은 부지 안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우도살림소규모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문구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작은 섬 우도에서, 그것도 교회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교회를 말할 때 등록하고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와 예산 규모만으로 이해하려는 알팍한 기준으로 보면 우도교회는 작은 섬, 길 가다가 만나는 초라한 교회일 수 있다.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만나고, 헌신과 수고의 손이 입혀지고, 여러 부침을 통과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낸 오늘의 우도교회는 에덴동산 중앙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을 생명나무처럼, ‘우도의 생명나무’가 아닐까? 우도교회가 잠깐 우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네주는 생명나무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욕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인간적 욕망에 대한 철저한 거절로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공생애가 시작됐다.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는 금욕의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세 가지를 시험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면서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했다.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며 예수님의 물욕을 자극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난 말씀대로 안전하겠구나”라고 예수님의 명예를 자극했다.

인간은 배불리지고 싶고, 부를 누리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다. 누구도 굶주림을 즐거워하지 않고, 가난과 고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무시당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사람도 없다. 바벨탑을 쌓아 성취하고 싶고, 고지의 시원한 공기를 누리고 싶어 한다. 사탄은 우리의 본능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본능의

향긋한 냄새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유혹한다. 순간의 향기를 쫓아 바벨탑을 쌓으면 그 길에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탄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육체의 필요가 절실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성공이다.

성공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다. 목적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 우리의 정욕은 깨진 항아리와 같다. 따라서 목적을 정욕의 성취로 두면 성공은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된다. 잠깐의 성공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늘 부족하고, 괴로운 상태에 머물 것이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목적, 그 한 가지 유일한 목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셉은 이 언약의 성취를 증거하는 증인

신뢰했다.

성경은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 단 한 가지 근거만을 말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형통했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보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은 성공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한 삶이다. 그러나 요셉은 땅의 성공, 눈앞의 성취를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정욕을 멀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직 십자가로 향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삶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최종현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고통의 수치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1~10점 중에 선택한다면 몇 점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척도 질문(scale question)으로 상대방이 겪는 아픔과 고통, 행복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큰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이 몸 전체에 들러붙는다. 환자에게는 고통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정이 있다.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수술 직후의 고통이 10 정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수치가 점점 내려가게 된다. 수술 받은 직후 환자에게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은 이분법적이다. 고통의 정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환자에게 효과적인 질문이다. 현재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숫자로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치료적 접근을 한다면 환자의 고통 경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3 정도의 고통에 대한 약 처방과 10 정도의 고통에 대한 처방이 당연히 달라야 한다. 간병인은 환자가 표현하는 고통의 수치를 근거로 현재 환자의 고통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10 정도의 고통을 환자가 호소한다면 간병인은 아마도 자신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환자가 겪는 고통을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의 경험 정도로 이해하게 된다.

‘아프다’와 ‘아프지 않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정도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연인과 헤어짐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자신이 연애와 결별의 경험이 없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온전하게 공감하기 힘들 것이다. 친한 친구와의 작별 정도의 아쉬움인지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위로를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어설픈 몇 마디 격려를 전하기도 한다.

이별의 아픔을 겪은 친구의 고통이 수치로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픔을 토로하는 친구에게 당장 어느 정도 아픈지 수치화된 질문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짐작해 볼 수 있다. 만일 친구가 10 정도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친구의 고통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결혼 생활 가운데 서운함을 표현할 때가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다”고 하는 때가 종종 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전혀 공감해 주지 않는 배우자가 섭섭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힘들다’와 ‘힘들지 않다’ 중에서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

라 힘들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지 표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험에 근거해서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된다.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말과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배우자가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과 우울을 느낀다면 그 고통의 크기와 강도를 넘겨짚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관계의 깨어짐에 대해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배우자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하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경험이 같지 않고, 고통을 느끼는 감정의 민감도가 서로 다르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관계가 깨어짐으로 어려움을 겪는 배우자를 공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 관계의 깨어짐이 큰 문제가 아닌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적당한 시간을 선택해서 물어볼 수 있다. 측정이 가능하고, 수치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중간 정도일 수도 있고,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의 경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고통 경험에 대입해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면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기대했던 시험 점수를 받지 못했거나 원하는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녀가 겪게 될 낙심과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 자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슬픔과 낙심일 것이다. 그런데 늘 시험에서 성공해서 살아왔던 부모라면 자녀가 느끼는 낙심의 정도를 깊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 자녀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헤아려 보고, 부모인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정도에 대입해 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낙심, 좌절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의 강도를 적당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히 큰데 사소한 정도로 간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먼저 가족의 고통을 수치적이고, 구체적으로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격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맛있는 말씀 해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값기를 더디하지 말라 …”(신 23:21)

교회 생활하면서 ‘서원기도’를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많다. 예를 들어 건축헌금을 작정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 개척교회 목사님 앞으로 헌금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경우, 수련회에서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그와 무관한 삶을 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

만약 서원기도를 하고 나서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2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기도의 기준과 규범 실행에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언약에 신실한 백성의 윤리를 다루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성품으로 성결, 구별됨, 용서, 긍휼, 자비의 맥락에서 서원기도를 언급하고 있다(21~23절). 구체적으로 도망간 종의 용서, 이자, 서원, 긍휼, 자비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서원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 약속한 기도는 자신의 기분대로 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에 그 약속에 대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찾으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원기도의 엄격함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고대 세계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위나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언사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맹세하고, 다른 사람의 서원기도를 모방해서 약속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신약시대 바나바의 선행을 흉내 내다가 심판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방범죄처럼 말이다(행 5:1~11). 하지만 그러한 말들은 과장되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서원기도를 한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었고,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환심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거짓말, 빈말들을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신명기> 기자는 고도의 윤리를 강조하면서 더디 값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값

으라’는 것은 서원기도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어로 ‘미루다’의 어원은 ‘게으르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서원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에 이웃들에게 행하는 거짓말을 면제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성경의 온전한 율법 정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원기도나 약속의 불이행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죄가 됨을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포시키고 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예 맹세 자체를 금기시키셨다. 하나님 앞에서 ‘예’면 ‘예’하고, ‘아니오’하면 ‘아니오’ 하라고 말씀하신다(마 5:33~37). 서원기도의 위험성을 아시고 원천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서원기도를 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서원기도보다 크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고 잘못 지킨 것을 용납 하셨음을 나타낸다.

과거 서원기도를 지키지 못해서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할 필요가 있다.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고후 5:17),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잘못된 서원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예수님이 보여 주신 하나님 나라

1월 8~14일

<마가복음> 3:20~6:13



모독하는 사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묵상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분을 폄하한다.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가족이라고 정의하신다.

묵상포인트 2: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된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제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듯,

묵상포인트 1: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령 모독 죄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훼방하는 것은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다. 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성령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국 창대하게 된다. 성도가 소망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의 권능을 묵상하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말씀하신다. 또 한 등불 비유로 진리의 복음이 감춰지지 않음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교훈하신다. 예수님은 땅에 심긴 작은 겨자씨가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운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신다.

묵상포인트 3: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배 타고 거라사 지방에 다녀오시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댄 한 여인을 찾아 평안을 전하신다.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생명임을 알리신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묵상하자.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다. 한 영혼의 구원보다 돼지 떼의 죽음과 재산 손실을 크게 여

긴 거라사 주민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바라며 간구한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병든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 받는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말씀으로 살리신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니 그곳에서 더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돌씩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니 제자들이 나가 회개를 촉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복음 안에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은 영적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교제하자.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마음은 욕도와 같이 좋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돌발인지 가시뿔불인지 살피고, 회개와 성령 충만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자. ▶땅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돌아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셨다. 질병, 슬픔, 낙심, 자포자기 등으로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생명을 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언니를 위해서!

저희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언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언니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이직 준비 과정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언니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언니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제목은 언니가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도,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언니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더불어 언니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2024 시무예배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 기관 임직원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 기관 시무예배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 기관이 지난 1월 3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4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 기관(선교재단, 복지재단, CGN, NGO 더멋진세상, 두란노서원, 두란노국제선교회, 온누리M미션, Acts29비전빌리지,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에셀선교회, 경배와

찬양) 임직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무예배는 신임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온누리교회 및 12개 협력기관 소개,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는 “온누리교회와 12개 협력 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Acts Now’(행 28:30~31)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목사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현장 속에 있다”면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짐을 믿고,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김다애, 김예은 기자

〈생명의 삶〉표지 공모전 수상작 게시

〈생명의 삶〉표지 공모전 수상작을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생명의 삶〉표지에 게시한다. 지난해 6월 열린 〈생명의 삶〉표지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오늘, 예수 안에 살다’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

는 일상의 은혜를 사진에 담는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2천여 점의 사진이 출품됐고,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佳作 5점, 입선 15점 등 24점이 수상했다. 수상한 작품을 계절과 월별 분위기 등에 맞춰 〈생명의 삶〉표지에 차례로 실을 예정이다.

‘FA 22기’ 단기선교사 모집

1월 19일까지 이메일로 구비서류 제출

‘FA 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격 조건은 온누리교회 등록 1년 이상, 대학 공동체 6개월 이상 소속, 35세 이하 미혼(1988년생 이상), 세례교인이다. 참가신청은 1월 19일(금)까지 이메일(fa@timor.kr)로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허입신청서 1부, 추천서 3부(온누리교회 목회자, 공동체 리더,

지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등이다. 허입신청서와 추천서는 두란노국제선교회(TIM)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FA는 ‘Frontier Agency’의 약자로 청년 선교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세워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단기 선교 사역이다.

온누리요양센터 세례식

입소 어르신 세 명 세례 받아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세 명이 지난해 12월 28일 세례를 받았다. 그 주인공은 이옥정(91세), 이진엽(82세), 성연옥(82세) 어르신이다. 세례식은 송석근 목사(양지온누리교회)가 집례했다. 이옥정 어르신의 자녀는 “어머니

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기도해왔다”면서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린다. 예비부와 결혼 6년 미만 신혼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30만 원.

문의: 02-2078-3263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가 오는 2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예비 중학생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5천 원이다.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5천 원 할인해준다.

스토리바이블 어린이 성경 읽기에서는 하루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보호자도 등록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37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CGN 〈사도행전〉묵상 프로그램 선보여

CGN이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묵상 사도행전 2024’(이하 사도행전 2024)를 선보인다.

‘사도행전 2024’는 CGN과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팀이 한국 교회 〈사도행전〉 공동 설교를 위한 주일설교 본문 편성을 따라 제작한다.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 교회가 로잔대회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공동 설교하는 ‘말씀 네트워크 운동’을 진행한다.

‘사도행전 2024’에서는 한국로잔위원회 말씀 네트워크 운동에 맞춰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연합과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깊이 되새기도록 돕는다. 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CGN에서 방송한다. 기독교OTT ‘풍당’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김유복 목사(대구기쁨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김의신 목사(광주다일교회), 박대영 목사(광주소명교회), 권성찬 목사(GMF대표), 진마리아 목사(여린양교회),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문대성 목사(대구동신교회) 등이 출연한다.

/ 홍하영 기자

1월 화요성령집회 ‘Pass it on’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1월 ‘화요성령집회’가 ‘Pass it on’을 주제로 막 올랐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1월 9일 이서진 목사 ‘완전히 달라진 인생, 거듭남’(요 3:1~15), 16일 최성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 십자가’(고전 1:18~25), 23일 임영광 목사 ‘우릴 통한 하나님의 꿈, 교회’(엡 2:11~22), 30일 최성민 목사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소망, 부활’(고전 15:51~58)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 김예은 기자 ye2un@onnuri.org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재정특강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두란노서원 블레싱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재정특강이 2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 두란노서원 블레싱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5천 원이다. 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결혼예

비학교 수료자 및 재정 점검을 원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크리스천 가정의 재무관리’, ‘개인별 재무원칙 및 경제관 확인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2078-3263

두란노어머니학교, 두란노아버지학교

1월 9일, 1월 20일부터 각각 열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1월 9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1월 9일(화)까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5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1월 20일(토)까지 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두란노어머니학교 (02-2182-9114)
두란노아버지학교 (02-2182-9100)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토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영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CMN 라파티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티료실
문의: 박기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자격: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서빙고 온누리 농어촌선교팀 팀원 모집
시간: 매 주일 10시 20분~12시
근무: 주5일 또는 파트타임(주 3일~4일)
장소: 지하 1층 식당 안쪽 회의룸
문의: 순현석 팀장(010-3485-5893)
*매월 연합 중보기도모임 예정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직원 모집
근무: 주5일 또는 파트타임(주 3일~4일)
업무: 총무 및 회계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1월 25일까지 kimluth@hanmail.net
문의: 010-8465-9094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양재 온누리 농어촌선교팀 팀원 모집
시간: 매 주일 오후 1시~2시
장소: 강의동 206호
문의: 지상목 팀장(010-9028-9530)
*매월 연합 중보기도모임 예정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illegible]

소천

12/29(금) 일산파주 문제현 집사 모친상 고 김순례 권사
12/29(금) 한강 이영신 집사 모친상, 최영호 집사 빙모상
고 김삼순
12/29(금) 특별한초대 조찬우 성도 모친상 고 김금순
12/29(금) 일산파주 김종숙 집사 모친상 고 윤경희
12/30(토) 강남B 장이슬 성도 모친상 고 최영옥
12/30(토) 서초B 강은결 성도 모친상 고 최규덕
12/31(주일) 신미란 성도 모친상 고 유진옥
12/31(주일) 서대문 김은미 성도 부친상, 탁종만 성도 빙부상
고 김용식
12/31(주일) 가정사역 허륜석 집사 모친상, 김정은 성도
시모상 고 김준자
1/1(월) 분당B 윤희진 성도 시부상 고 최봉기
1/2(화) 브릿지33 김현수 성도 부친상 고 김한호
1/3(수) 강남C 정현 성도 부친상 고 정영주
1/5(금) 이촌 김석인 장로 부친상, 고영희 권사 시부상
고 김정희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택교과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D(학습 성격 유형 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거피출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가족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2024년 1월 6-7일, 13-14일 선교헌금작정

온누리의 새해, 선교와 함께 시작합니다.

선교헌금 작정 방법

- 현장 작정 (2024년 1월 6-7일, 13-14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 온라인 작정 (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 전화 작정 (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정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 자동이체 (CMS) :
 -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 헌금봉투 방식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

